

개신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 삼중언어교육을 향하여* -

손 원 영

서울기독교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한국 개신교 종교교육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뒤,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한국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두 가지의 연구주제를 탐색하였다. 첫째는 국내외의 기독교교육학 연구주제들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수업이론, 신앙공동체이론, 신앙발달이론, 해방이론, 그리고 해석이론 등이 주요한 연구주제로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디지털사회에 부응하여 온라인교육과 기독교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과거 기독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전제로,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요구되는 한국 기독교교육으로서 ‘삼중언어교육’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성서언어교육, 기독교예술언어교육, 그리고 영성언어교육이다. 여기서 성서언어교육은 복음서중심의 교육, 비판적 성서교육, 그리고 다중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이 제안되었다. 기독교예술교육은 학습자의 예술체험, 감각의 평등성, 그리고 예술언어의 계시성과 성례전성의 고려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영성언어교육은 영성형성으로서의 기독교 교육, 다양한 영성전통의 존중, 그리고 한국인의 영성을 고려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결국 삼중언어교육은 상호배타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으로서, 개신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포스트모던 패러다임, 개신교 종교교육, 기독교교육, 삼중적 언어교육, 성서언어교육, 기독교예술언어교육, 영성언어교육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I. 머리말

지금 한국 개신교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그것은 소위 ‘가나안성도’¹⁾로 불리는 현상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적지 않은 신자들이 개신교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혹은 적어도 교회출석을 포기하고 명목상 개신교인으로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비록 최근에 일어난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최근 교회성장이 멈춘 한국 개신교에게 있어서 결코 낮은 일은 아니다. 즉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개신교의 교세는 급속히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목회자의 도덕적 탈선과 교회의 세습 등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도의 추락은 이러한 가나안성도 현상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면서, 그 대안을 찾기에 분주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개신교의 성장둔화와 가나안성도의 확대, 그리고 개신교의 신뢰도 상실 등이 개신교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근본적인 원인일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외형적인 문제점들이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즉 하지슨(Peter C. Hodgson)이 일찍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것은 패러다임의 위기인 것이다. 달리 설명하면, 세계는 지금 ‘이성’ 중심의 모던 패러다임의 시기를 끝내고 소위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시기로 전환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그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슨에 따르면, 모던 패러다임에서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일곱 가지의 위기가 생긴다. 그것은 인지적 위기, 역사적 위기, 정치적 위기, 사회경제적 위기, 생태적 위기, 성적 위기, 그리고 종교적 위기 등이다.²⁾ 결국 개신교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개신교 종교교육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개신교 종교교육(이하에서는 ‘기독교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함)은 어떤 방향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할 것인가?³⁾ 즉 새

1) “가나안성도”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말로써, ‘안 나가’를 뒤집어 나온 ‘가나안’이란 단어에 ‘성도’를 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오늘날 제도 밖에서 신앙을 찾고 있는 일군의 개신교인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양희송, 『가나안성도 가나안교회』(서울: 포이애마, 2014), 10 참조.

2) Peter C. Hodgson, *Winds of the Wind* (1994), 『기독교구성신학』, 손원영 외 역(서울: 은성출판사, 2000), 99-107.

3) 한국 기독교교육의 비전 관련 주목되는 선행 연구들로는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0), 제1장; 김기숙, “한국교회의 갱신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제7집(2003), 8-42; 손원영·김지혜, “종교교육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종교교육학 연구의 분석적 탐색-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및 한국종교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21권(2005), 61-87; 박상진, “변화하는 교회교육 패러다임: 교회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교회』 363권(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14-22; 신국원, “해체의 문화와 살림의 영성: 포스트모던의 기독교교육 비전,”

로운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에 적절한 기독교교육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논문에서는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는 1980년 대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진행되어온 국내의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논의된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들은 향후 미래의 비전을 위한 유효한 토대로써 논의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미래 기독교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의 탐색으로써, 연구자는 ‘삼중언어’(triple languages)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독교교육 연구주제의 변화

지난 약 30여 년 동안 기독교교육은 급격히 변한 시대의 변화만큼 다양한 변화의 시대를 보냈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 및 저서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한 저명한 기독교교육학자이자 세계 기독교교육학계를 대표하는 학회지인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의 편집장이기도 한 세이모어(Jack L. Seymour)⁴⁾가 지난 30여 년 동안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계의 기독교교육학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 잘 연구해 왔다는 점이다.⁵⁾ 비록 한 학자의 글이 세계 기독교교육학계 전체의 변화를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또 그의 글이 한국교회의 상황에 그대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연구는 글로벌시대에 기독교교육의 비전을 탐색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그의 저서들 속에 반영된 기독교교육의 흐름은 무엇이고, 새로운 비전을 찾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기독교교육정보』, 36(2013), 45-69; 정희정·김남임, “기독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연구』, 17:4(2013), 113-138 참조.

4) 세이모어는 미국 볼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1970),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PhD, 1982) 박사 학위 취득 후 그는 밴더빌트대학교와 시카고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쳤으며, 1988년 이래 현재까지 시카고의 게렛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그는 기독교교육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미국종교교육협회 발행)의 책임편집자로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오랫동안 일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기독교교육학계의 학문적 흐름을 잘 파악한 그의 통찰력에 대한 학계의 인정이 아닌가 싶다.

5) 세이모어는 약 15년 주기로 기독교교육학계의 학문적 동향을 반영한 저서를 세 권 출판하였다. 그것은 Jack L. Seymour & Donald E. Miller, eds., *Contempor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Jack L. Seymour, *Mapping to Christian Education: Approaches to Congregational Learn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Jack L. Seymour, *Teaching the Way of Jesus: Educating Christians for Faithful Liv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14)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세계 기독교교육학계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80년대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들

우선 세이모어는 그의 동료 도날드 밀러(Donald E. Miller)와 함께 편집한 책 『오늘의 기독교교육연구』⁶⁾(1982)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그의 책이 출판된 198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그것은 교수-학습이론을 준거로 한 ‘종교수업’ 이론, 사회집단의 내면화 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과 비형식 교육 형태의 효과이론을 중시하는 ‘신앙공동체’ 이론, 인간의 정서·인지·도덕적 사고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신앙발달’ 이론, 교육의 실천적 기능과 프락시스 이론에 기반을 둔 ‘해방교육’ 이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현재의 상황에 적절히 연결시켜 해석하고 실천하게 하는 ‘해석학적 종교교육’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우선 첫 번째의 주제는 “의도된 학습성과”라는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교수-학습이라는 공식적인 수업형태에 관심을 둔 ‘종교수업’(religious instruction) 이론이다. 이 주제는 주로 제임스 마이클 리(James Michael Lee)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었는데, 리는 ‘삼부작’(triology)으로 불리는 그의 세 저서 모두에서 ‘사회과학적 접근’(social science approach)이라는 부제를 달아주었다.⁷⁾ 그는 삼부작에서 종교수업이론을 통해 즉 종교수업이 좀 더 사회과학적 엄밀성에 의해 연구됨으로써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학습과정이 진행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소위 ‘학교교육식 패러다임’(schooling paradigm)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앞의 종교수업 이론과 대척점에 선 접근으로써 소위 ‘신앙공동체’(faith community) 이론이다. 신앙공동체이론은 주로 넬슨(C. Ellis Nelson)과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 III)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⁸⁾ 그들은 교수-학습이란 공식적인 학교수업형태에 의해 진행되는 현재의 교회교육은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행동양식을 기독교적 양식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 비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대신에 그들은 신앙공동체 학습이론에 입각한 교육형태로 기독교교육이 전환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6) Jack L. Seymour & Donald E. Miller, eds., *Contempor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이 책은 1990년대 중반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었다. Seymour & Miller, 『오늘의 기독교교육연구』, 맹용길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7) James Michael Lee, *The Shape of Religious Instruction: A Social Science Approach*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1971); idem, *The Flow of Religious Instruction: A Social Science Approach*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73); idem, *The Content of Religious Instruction: A Social Science Approach*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5).

8) 신앙공동체 이론을 이끈 대표적인 저서들은 넬슨의 경우 *Where Faith Begins* (Louisville: John Knox, 1971)이고, 웨스터호프의 저서로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6)와 G. K. Neville과 함께 공저한 *Generation to Generation: Conversations on Religious Education and Culture*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1974)을 들 수 있다.

같은 독특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인간이란 인지·정서·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그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존재라는 사회학적 가설과, 각 세대는 윗세대로부터 비슷한 문호와 행동양식을 전수받고 있다는 인류학적 이론을 지지하는 맥락에서 실시한 연구였다.

세 번째의 연구주제는 ‘신앙발달’(faith development) 이론이다. 이것은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각 개인의 인지적·정서적·도덕적 발달 과정은 신앙발달 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써, 주로 발달심리학의 기본전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⁹⁾ 즉 각 사람의 발달과정은 그의 연령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발달의 형태는 관찰·발견·측정·검증 및 통계와 같은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밝혀질 수 있으며, 또한 분류될 수 있다는 전제를 그대로 수용한 맥락에서 제시된 교육모형이었다.

네 번째의 연구주제는 교육의 실천적 기능과 ‘프락시스’(praxis) 이론에 관심을 둔 ‘해방’(liberation) 이론이다. 이것은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억압의 현실에서 기독교교육이란 경제적인 착취와 정치적인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 인간해방을 지향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특히 1970년 이후 교육학계에서는 프레이리(Paulo Freire)의 해방교육론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은행저축식교육 대신에 소위 해방지향적인 의식화를 위한 ‘문제제기식교육’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도 남미의 구티에레스(Gustavo Gutierrez)가 제시한 ‘해방신학’은 기독교교육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이 되었다.¹⁰⁾ 이들은 지식이란 지식사회학에서 강조하듯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요, 무엇보다 현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시작되어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을 지향해야 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다섯 번째의 연구주제는 ‘해석’(interpretation) 곧 해석학적 종교교육이다. 해석학적 접근은 기독교적 삶과 기독교적 삶을 어떻게 상호 적절히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제시된 이론인데,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과 메리 모어(Mary C. Moore) 등의 이론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룸은 그의 저서 『기독교적 종교교육』(*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1980)에서 ‘공유적 프락시스 접근’(shared praxis approach)을 제시하였다.¹¹⁾ 그것은 “삶-성경말씀(전통)-삶”으로 이어지는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교수-

9)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10)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1970); Gustavo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Politics, and Salvation* (1973) 참조. 그리고 해방의 주제에 깊이 관심을 둔 기독교교육학자로는 Daniel S. Schipani를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그의 책 *Religious Education Encounters Liberation*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8) 참조.

11)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학습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교육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2. 1990년대의 기독교교육의 주제들

세이무어는 1982년에 『오늘의 기독교교육연구』를 편집 출판한 이후, 15년 만에 다시 기독교교육학의 주요한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탐색한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982년 저서의 경우, 그의 동료 밀러(Donald Miller)와 함께 다섯 주제에 대한 각 필자들의 글을 그가 편집하였을 뿐이었다면, 1997년에 출판된 책, 『기독교교육의 지도그리기』(*Mapping the Christian Education*, 1997)¹²⁾에서는 이전의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각 주제별 전문가의 글을 통해 잘 소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15년 만에 출판된 『기독교교육의 지도그리기』에서 제시된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 ‘신앙공동체’(faith community), ‘개인의 형성과 성장’(educating persons), 그리고 ‘가정만들기로서의 종교수업’(religious instruction as homemaking)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의 저서와 비교하여 볼 때 새롭게 수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1997년의 저서에 드러난 가장 큰 특징으로써 1982년의 저서에서 강조되었던 ‘해석’의 주제가 빠진 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적 삶과 삶을 연결시키려는데 목적을 둔 해석학적 종교교육은 실천의 문제를 다룬 ‘해방’의 주제와 결합되어 ‘사회변혁’의 주제로 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해방의 주제나 해석의 주제 모두는 ‘프락시스’(praxis)의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편집된 이 책에서 ‘사회변혁’의 주제를 다룬 쉬파니(Daniel S. Schipani)는 주로 해방신학적 입장에서 ‘변혁’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해석학적 종교교육의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하나는 1982년의 저서에서 강조된 다섯 가지 주제 중 해석의 주제를 뺀 나머지의 네 주제들은 1997년의 저서에서 새롭게 수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해방’의 주제는 소위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측면이 보완되어 기독교교육이 사회적 변혁에 어떻게

12) Jack L. Seymour, *Mapping to Christian Education: Approaches to Congregational Learning* (Abingdon Press, 1997). 이 책 역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기독교교육의 지도그리기』,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참조.

13)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136. 필자도 해방의 주제와 해석의 주제는 별도의 분리된 주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모두는 ‘실천’(praxis)의 주제를 다룬 것으로서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다룰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필자는 해방적 프락시스와 해석학적 프락시스를 통합하여 소위 ‘테오프락시스’(theopraxis)를 제안한 바 있다. 자세한 것은 손원영,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제1부 참조.

기여해야 하는 지를 탐색하고 있다. ‘신앙공동체’의 주제는 이전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가톨릭교회가 제2바티칸공의회에서 새롭게 강조한 ‘새신자 세례입교교육’(catechumenate)을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곧 초대교회는 교회공동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새신자들에게 매우 엄격한 ‘세례입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회가 로마제국에 의해 공인된 이후 점차 그것을 상실했었는데, 제2바티칸공의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성례전교육의 차원에서 회복하였던 것이다.¹⁴⁾ ‘발달’의 주제는 과거 발달심리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새로운 저서에서는 그 발달의 개념이 심리학적 주제로 축소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대신 ‘영성’(spirituality)의 측면에서 새롭게 논의될 것을 주장한 점이다. 이것은 ‘인간발달’의 주제를 영성의 지평으로 확대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종교수업’의 주제는 ‘가정만들기’라는 맥락에서 수정되었다. 1982년의 저서에서 종교수업의 주제는 마이클 리의 ‘사회과학적 접근’의 엄밀성에 따라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춘 종교수업이론이 제시되었다면, 1997년의 책에서는 사회과학적 엄밀성 보다는 종교수업이 ‘가정’이란 개념이 암시하듯이 보다 아늑하고 창조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을 제시한 점이다. 결국 세이모어는 15년 만에 출판된 새 저서를 통해 기존의 주제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15년 전의 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3. 2000년대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주제들

한편 세이모어는 『기독교교육의 지도그리기』를 편집 출판한 이후, 약 18년 만인 2014년에 다시 그와 유사한 책을 출판하였다. 그것은 2000년 대 이후 기독교교육학의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중심으로 탐구한 책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Teaching the Way of Jesus*, 2014)¹⁵⁾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전의 두 책, 곧 『오늘의 기독교교육연구』와 『기독교교육지도그리기』는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책이라면, 이 책은 본인이 단독으로 연구한 저서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발전 및 전개되어왔는지를 탐구한 저자로서는 어쩌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세이모어는 이 책에서 2000년대 이후 기독교교육은 세 가지의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

14) 제2바티칸공의회에 의해 회복된 성례전교육은 ‘RCIA’(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로 불린다. 이것은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입교’를 하나의 연속된 성례전적 사건으로 보는 입장으로써, 가톨릭교회에서는 ‘가입의 성례전’(sacrament of initiation)이라고 부른다. 자세한 것은 손원영, 『새 시대 새 포도주: 새로운 교회교육과 학교 종교교육』(서울: kmc, 2011), 제6장 “교육목회로서의 RCIA와 영성형성모델”참조.

15) Jack L. Seymour, *Teaching the Way of Jesus: Educating Christians for Faithful Liv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14); 이 책은 최근 세이모어의 제자인 오성주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제목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서울: 신앙과지성사, 2015)이다.

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신앙공동체’(faith community)와 ‘종교수업’(religious instruction) 그리고 ‘선교’(mission)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신앙공동체’의 주제는 1970년대 이래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신앙공동체의 주제는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가 강조했던 다섯 가지의 교회사역 곧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다케,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찰스 포스터(Charles Foster)의 ‘교리문답적 문화’(catechetical culture)에서 중시하는 세가지 실천 곧 친절의 실천, 축제의 실천, 그리고 대화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¹⁶⁾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이모어가 바로 이 신앙공동체의 주제 속에 ‘영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앞선 저서 (1997)에서 ‘발달’의 주제 속에 포함시켰던 영성의 주제를 이제는 신앙공동체 속에 영성적 실천의 측면에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익스트라(Craig Dykstra)와 바쓰(Dorothy C. Bass)가 강조해온 영성적 실천의 문제를 신앙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다음으로 세이모어는 ‘종교수업’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세이모어가 종교수업의 주제를 ‘신학연구’의 주제로 달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과거의 종교수업에 대한 논의에서 제임스 마이클 리(James Michael Lee)를 비롯한 종교수업 이론가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수업이란 주로 신학교에서 연구되는 지식 중심의 신학 연구와 대비되는 것으로써, 경험 중심의 종교수업이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이모어의 종교수업의 주제에 대한 설명은 정작 마이클 리가 비판했던 지식 중심의 종교수업을 함축하는 의미로써, 그는 지식 중심의 종교수업을 과감히 교회에 수용할 필요성을 역설한 점이다. 이것은 평신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종교수업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식 중심의 신학교육을 종교수업 차원에서 수용한다할지라도, 그 신학연구는 팔리(Edward Falrey)가 비판하였듯이 신학적 지식 탐구 자체를 위한 신학연구가 아닌 신학의 본래 의미인 ‘지혜’(wisdom)를 추

16) Ma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Charles R. Fost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Adaptive Challenge of Mainline Protestant Education in Forming Faith* (Eugene, OR: Cascade Books, 2012) 참조.

17) 다익스트라는 기독교인의 실천목록을 14가지로 제시하였다(예배드리기, 기독교 이야기 들려주기, 성서와 전통을 해석하기, 기독하기, 화해하기, 서로 격려하기, 섬기며 증언하기, 관용을 베풀기,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기, 친절과 돌봄을 제공해 주기, 서로서로 삶의 경험에 대해 듣고 이야기하기, 함께 고민하기, 악의 세력을 비판하고 저항하기, 신앙적인 사회구조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역하기) 자세한 것은 Craig Dykstra, *Growing in the Life of Faith: Education and Christian Practices* (Louisville: Geneva Press, 1999) 참조. 한편 다익스트라는 바쓰와 함께 편집한 책에서는 영성적 실천으로써 12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몸을 소중히 하기, 환대, 가정경제, 예/아니오를 말하기, 안식일지키기, 증언, 식별, 공동체형성하기, 용서, 치유, 잘 죽기, 삶을 노래하기) 자세한 것은 Dorothy C. Bass, ed., *Practicing Our Faith*,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2010) 참조.

구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¹⁸⁾

한편 종교수업으로서의 신학수업은 성서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신앙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킴으로써 이 시대 속에 책임있는 신앙인들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이모어는 이전의 저서(1997)에서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해석’의 주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종교수업의 주제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의 공유적 프락시스 접근, 앤 윈벌리(Anne Wimberly)의 ‘이야기 연결하기’(story-linking), 그리고 도리 베이커(Dori Grinenko Baker)의 “LIVE” (Listen-Immerse in the feeling-View it wider-Explore actions and ‘Aha’ Moments/듣기-감정에 몰두하기-더 넓게 바라보기-행동과 ‘아하’의 깨달음의 순간을 탐구하기)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세이모어는 이러한 신학수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에 강조했던 발달론적 접근을 종교수업을 위한 준비로 강조하면서 특히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와 토마스 암스트롱(Thomas Armstrong)의 다중지능이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²⁰⁾ 결국 세이모어는 신학연구로서의 종교수업에서 ‘해석’의 주제와 ‘발달’의 주제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끝으로 세이모어는 ‘선교’의 주제를 다루는데, 이것은 이전의 저서에서 고찰하였던 ‘해방’(1982) 및 ‘사회적 변혁’(1997)의 주제와 연속성을 이룬다.²¹⁾ 그런데 새로운 저서에서는 해방이나 사회적 변혁이란 주제의 명칭 대신 보다 교회 중심적인 용어인 ‘선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선교의 목적은 참된 인간성(true humanity)의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저서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즉 세이모어는 ‘선교’라는 주제에서 레티 러셀(Letty Russell)의 연구 곧 WCC의 하나님의 선교신학에 근거한 『선교교육론』(*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1967), 프레이리와 쉬파니의 해방교육론을 계승하면서 선교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이모어는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계급차별 때문에 고통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에벌린 파커(Evelyn Parker) 연구에 주목하면서 선교를 지향하는 기독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저항적 상상력, 자기가치, 충성, 도덕적 대행, 그리고 거룩한 분노’라고 제시하였다.²²⁾

18) Edward Farley, *Practicing Gospel: Unconventional Thoughts on the Church's Minist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vix.

19) Thomas H. Groome,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New York: HarperOne, 2011); Anne S. Winberly, *Soul Stories: Afric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rev. 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Dori Ginenko Baker, *Doing Girlfriend Theology: God-Talk with Young Women* (Cleveland: Pilgrim, 2005) 참조.

20) Howard Gardner, *Multiple Intelligences: New Horizons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2006); Thomas Armstrong,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3rd ed. (Alexandria, VA: Association of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2009) 참조.

21) Seymour,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 205.

22) Seymour,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 210. Evelyn L. Parker, *Troubled Don't Last Always*:

4. 연구주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앞에서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세계 기독교교육학계의 연구 주제들을 세이모어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여기서 개신교 종교교육의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세이모어의 연구주제의 분류와 관련하여 비판적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하나는 세이모어의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의미있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교육학계에서 논의되는 연구주제와 견주어 비교할 때,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첫 번째 논의와 관련하여 볼 때, 세이모어가 제시한 연구주제들은 비록 시대별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 연구주제의 연속성은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비전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세이모어는 1982년의 저서인 『오늘의 기독교교육연구』에서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들로 ‘종교수업’, ‘신앙공동체’, ‘발달’, ‘해방’, ‘해석’의 주제로 처음 범주화하였고, 1997년의 저서인 『기독교교육지도그리기』에서는 ‘해석’의 주제를 제외시켰지만 ‘사회변혁’, ‘신앙공동체’, ‘개인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가정만들기로서의 종교수업’이란 주제로 여전히 유효한 주제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출판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에서는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로써 영성적 실천의 공동체로서의 ‘신앙공동체’와 신학수업으로서의 ‘종교수업’ 그리고 해방추구의 ‘선교’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1982년에 연구주제로 강조되던 ‘해석’과 ‘발달’의 주제가 2014년의 저서에서 사라지고 대신 ‘신앙공동체’, ‘종교수업’, 그리고 ‘선교’(해방)의 주제만이 의미있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모두는 여전히 기독교교육의 주요한 연구주제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한 연구주제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영성형성’과 ‘비판적 신학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이모어가 오랫동안 제시했던 위와 같은 연구주제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의와 관련하여 볼 때, 세이모어가 세 권의 저서를 통해 제시했던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의 변화는 한국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와 비교할 때, 한국교회의 특수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를 비교하려면, 세이모어에 상응하는 유사한 국내의 연구자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교육학자 중 세이모어처럼 일관되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논의해온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관찰하고 탐색한 연구서들을 출판한 학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임의로 그와 유사한

저서 두 개를 선정하여 세이모어의 주제들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하나는 필자가 지난 2002년에 출판한 저서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2002) 속에서 반영한 연구주제의 분류이고, 또 하나는 최근 2012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저서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2012)에 반영된 연구주제들이다.

우선 연구자는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2002)에서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실에서 유의미한 연구주제로써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종교수업이론, 신앙공동체이론, 다중지능이론, 영성적 접근, 그리고 프락시스 접근이다.²³⁾ 이상의 다섯 가지 주제는 앞서 살펴본 세이모어의 논의와 견주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출판 시기 상 필자의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2002)와 세이모어의 두 번째 책인 『기독교교육 지도그리기』(1997)가 비교적 비슷한 시기라고 할 때, 두 저서에 나타난 주제의 차이는 크지 않다. 즉 세이모어와 필자는 모두 종교수업이론, 신앙공동체이론, 사회적 변혁이론(프락시스이론), 그리고 개인의 형성과 성장(영성)이론에 관심이 많았다. 다만 하나의 차이는 필자가 다중지능이론의 중요성을 당시 언급한 부분이다. 물론 다중지능이론도 세이모어가 2014년의 저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에서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필자와 세이모어 사이의 유사성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교수들은 공동으로 출판한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2012)에서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로써 일곱 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것은 ‘놀이’, ‘신앙공동체’, ‘영성’, ‘관계’(멘토링, 상담), ‘교회와 가정의 연계’(간세대교육), ‘교회와 학교의 연계’(종교수업), 그리고 ‘온라인’이다.²⁴⁾ 이들의 일곱 가지 연구주제를 비슷한 시기에 출판한 세이모어의 저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2014)에 나타난 연구주제와 비교할 때, 한국교회의 특수성이 보다 잘 드러난다. 즉 세이모어와 장신대 교수들은 ‘신앙공동체’(간세대교육)와 ‘영성’(상담, 멘토링), ‘종교수업’(교회와 학교의 연계)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있으나, 장신대 교수들은 ‘놀이’와 ‘온라인’ 등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세이모어의 연구주제가 한국교회에도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예술(놀이)’과 ‘디지털문화읽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3)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제2부 참조.

24) 고원석·김도일·양금희·이규민·장신근·박상진·전영미,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2) 참조.

Ⅲ. 한국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

일찍이 가브리엘 모란(Gabriel Moran)은 기독교교육에서 ‘이중언어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이중언어이론이란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전수하고 또 반성하기 위한 모국어와 함께 기독교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이론에 동의하면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도 두 언어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그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한 모국어와 함께 이방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성서적 근거를 들면서 강조하였던 것이다.²⁶⁾ 이렇게 기독교교육에서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그 만큼 이중언어의 필요성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찰스 포스터(Charles Foster)는 이러한 이중언어에 대한 기본 입장에 동의하면서, 기독교교육을 위한 언어이론을 더 구체화시켜 다섯 가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것은 자신의 특정 종교공동체의 종교적 언어를 이해하는 모국어로서의 종교교육 언어, 이웃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종교대화를 위한 종교교육 언어,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기위한 공적 종교교육 언어,²⁷⁾ 종교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자들에게 종교를 바르게 설명하기 위한 후기종교적 종교교육 언어, 그리고 학문적 종교교육 언어가 그것이다.²⁸⁾ 그렇다면, 소위 ‘가나안’ 교인이 양산되는 현실에서, 더욱이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는 위기의 현실에서 한국 기독교교육은 어떠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특히 어떠한 연구주제를 갖고 연구하고 그것을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앞에서 살핀 세이모어와 국내의 연구동향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중핵적인 연구주제로써 다음과 같은 삼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성서언어교육, 예술언어교육, 그리고 영성언어교육이다. 그리고 이 셋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침투와 교제를 의미하는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의 의미처럼 서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25) Gabirel Moran, *Religious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9).

26) Walter Brueggemann, "The Legitimacy of a Sectarian Hermeneutic: 2 Kings 18-19,"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ed. Mary C. Boys (New York: The Pilgrim Press, 1989), 3-34.

27) Jack L. Seymour, H. O'Gorman, C. R. Foster, *The Church in the Education of the Public: Refocusing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28) Charles R. Foster, "Religious Education at the Edge of History," *Religious Education* 99:1 (Winter 2004), 72-78.

1. 성서언어교육

국제화 시대가 될수록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필요성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교육을 위한 제1의 언어는 모국어로서의 ‘성서의 언어’이다.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인 모국어에 정통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존재의 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국어의 중요성은 일찍이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하였던 ‘언어의 철학’(the philosophy of language) 사상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즉 언어의 철학자들은 ‘언어와 인식’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인식의 주체인 인간은 그 인식의 대상인 객관적인 세계나 ‘물자체’(Ding an sich)를 감각이나 직관 혹은 사유를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없으며, 단지 그 둘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언어’라는 중간세계를 통해서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언어란 인간에게 있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단순히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특이한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을 창출해 내는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²⁹⁾ 이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의미를 넘어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 즉 언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의 도구 이전에 인간 의식을 결정하는 중간세계이자 존재의 집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그가 기독교적 언어와 얼마나 익숙하게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삶과 기독교적 삶의 일치를 교육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이라면,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모국어교육으로서의 성서교육에 우선적인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국어로서의 성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까? 여기서 연구자는 적어도 성서교육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국어로서의 성서교육은 일종의 기독교 정체성교육으로써 ‘복음서’ 중심의 성서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기독교교육은 곧 성서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이 소위 ‘성경공부’로 불리는 성서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어쩌면 가톨릭교육과 구분되는 개신교교육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톨릭 종교교육은 ‘카테키즘’(Catechism)으로 불리는 ‘교리교육’을 강조하였다면, 개신교의 종교교육은 루터 이후 ‘성서연구’를 개신교의 정체성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성서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교리 중심의 성서연구가 대세를 이루면서 결국 성서가 교리로 축소되는 한계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더욱이 개신교는 ‘칭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수없이 교육하였지만, 정작 예수의 가르침인 복음서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긴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성서를

29) 강희천, “언어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사상』, 37.

성서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치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도 강조했듯이, 구약성서에서 율법으로서의 ‘토라’(Torah: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예언서’(Neviim)나 ‘성문서’(Kethuvim)보다 유대교 신앙의 핵심으로써 중요하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처럼,³⁰⁾ 신약성서에서 ‘복음서’는 소위 기독교의 토라로써 서신(바울서신이나 일반서신)이나 계시록보다 더 본질적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비록 중요하지만, 그가 예수보다 결코 더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의 삶과 사상 곧 그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성서교육의 중심으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한 자아정체성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 곧 언어비판을 통해 형성되듯이, 성서교육은 ‘비판적 성서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성서교육은 신학적으로 볼 때, ‘성서무오설’ 혹은 ‘축자영감설’ 등의 용어에서 암시하듯이 합리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은 소위 ‘근본주의신학’(fundamentalism)에 따라 진행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근본주의적 성서해석은 더 이상 이성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성서연구에서는 다양한 비평적인 관점들이 과감히 기독교교육에 수용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자는 성서가 기독교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늘의 메시지라면, 당연히 비신자를 위한 성서연구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런 점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문학적 성서연구’도 성서교육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신약학자 타이쎈(Gerd Theißen)의 ‘열린성서교수학’은 매우 시사적이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열린성서교수학이란 기독교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비신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³¹⁾ 그래서 그는 성서를 이웃종교와 대화하는 존재이자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대화주의’의 입장에 서서 열린성서학습의 네 가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유의미하다.

개인적으로 성경은 네 가지 방식, 즉 본문 해석을 통해서, 본문에 대한 발생사적, 영향사적, 그리고 비교문학적 고찰을 통해서 타종교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타종교와 관련된 성서의 진술을 해석하거나 성서 안에 있는 타종교의 메아리(영향)를 찾아볼 수 있다. 또는 영향사적으로 성서본문이 타종교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추적할 수 있고, 성서와 타종교의 비교 본문 간의 역사적 관련성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성서의 진술과 타종교의 진술을 비교 문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³²⁾

30) Walter Brueggemann, *The Creative Word: Canon as a Model for Biblical Education*, 2nd e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15) 참조.

31) Gerd Theißen, *Zur Bibel Motivieren* (2003),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열린 성서학습의 길』, 고원석·손성현 역(서울: 동연, 2010), 8.

32) Gerd Theißen,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66.

셋째, 새로운 성서언어교육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 이론 등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식을 고려하는 맥락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중지능이론이란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가 인간의 지능으로써 오랫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IQ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지능이론으로써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을 포함한 여덟 가지 지능(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자연지능, 대인지능, 자성지능)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이다.³³⁾ 이것은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인간의 지능발달은 뇌의 다양한 부위가 골고루 활성화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이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뇌의 부위인 전두엽은 자기성찰의 자성지능과 대인관계를 위한 대인지능과 관련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종교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전(全) 뇌기반수업의 활성화는 성서교육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예술언어교육

예술은 지금까지 기독교교육학을 비롯한 신학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자들의 교회의 삶에서조차 크게 강조되지 못하였다. 기껏해야 예술은 공적 예배 전 준비찬송과 같이 일종의 흥을 부추기 위한 도구적 가치의 차원에서 부차적인 자리만 차지할 뿐이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에서도 하나님을 ‘진-선-미’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진리’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비하여 아름다운 ‘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매우 인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 예술신학자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의 연구는 매우 주목을 끈다. 발타살은 비록 진-선-미 가운데 미의 관점이 다른 두 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아쉽게도 서양 철학 및 신학사에서 미의 차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소외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의 복권을 통해 진-선-미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의 유명한 삼부작인 『주님의 영광』, 『테오드라마』, 그리고 『테오로직』은 각각 ‘신학적 미학’(theological aesthetics; *pulchrum*), ‘신학적 드라마학’(theological dramatics; *bonum*), 그리고 ‘신학적 논리학’(theological logic; *verum*)을 다루고 있다.³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진-선-미의 순서로 그의 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역전시켜 ‘미-선-진’의 순서로 그의 작품을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33) Howard Gardner, *Intelligence Reframed* (1999),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문용린 역(서울: 김영사, 2001) 참조.

34) Hans Urs von Balthasar,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vol.1, trans. by Erasmo Leiva-Merikaki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8); idem,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8-1998); idem, *Theo-Logic: Theological Logical Theory*, trans. by Adrian Walker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0) 참조.

결국 발타살의 연구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며, 특히 불균형을 이룬 진·선·미가 비로소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지금까지 진리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서연구를, 선의 하나님을 교육하기 위해 윤리교육을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미의 하나님을 교육하기 위해 예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선-미의 하나님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독교예술교육의 필요성은 “시온이 보헤미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웨스트호프(John Westerhoff III)의 도발적인 논문에서도 잘 드러난다.³⁵⁾ 그렇다면, 기독교교육에서 이러한 예술언어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기서 연구자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예술언어교육은 ‘예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에서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사실 예술교육학계에서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 사이의 논쟁은 존 듀이(John Dewey) 이후 적지 않게 오래된 논쟁이다. 그것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으니 말이다. 듀이에 따르면, 현대 예술은 일반적으로 순수예술과 실용예술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예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술자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듀이는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였던 예술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어 박물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과 동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편협한 구분에서 벗어나서 예술을 우리의 일상과 자연으로 되돌리려는 운동을 하였던 것이다.³⁶⁾ 이러한 듀이의 예술 이해에 기댈 경우, 우리는 전문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한 예술을 위한 교육보다는 ‘예술체험’을 목표로 한 예술교육, 곧 ‘보통사람(비예술인)을 위한 예술교육’으로서의 예술을 통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맥신 그린(Maxine Greene)의 예술교육운동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그린은 뉴욕 링컨센터의 예술교육원을 통해 바로 미적 체험을 위한 예술교육을 지난 수 십년동안 실천해 왔던 것이다.³⁷⁾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예술교육도 바로 이런 ‘예술체험’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기독교예술교육은 기독교전문예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일반신자로 하여금 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술체험이 신앙체험에 이르고, 또 신앙체험이 예술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독교교육예술교육은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예술언어교육은 예술언어로써 ‘감각의 평등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지

35) John Westerhoff III, “What does the Zion have to do with Bohemia?” *Religious Education*, 76:1 (1981), 5-15.

36) John Dewey, *Art as Experience* (1934),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역(서울: 책세상, 2003) 참조.

37) 그리니 뉴욕 링컨센터의 예술교육원에서 행한 예술체험을 위한 예술교육론에 대한 강의원고들은 Maxine Greene, *Variations on a Blue Guitar: The Lincoln Center Institute Lectures on Aesthetic Education* (2001), 『블루기타변주곡』, 문승호 역(서울: 다빈치, 2011)로 출판되었다.

하듯이, 지금까지 기독교 예술사를 살펴볼 때, 감각의 우열사상이 현존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청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형상화를 가능케 하지만, 시각이나 촉각은 보이는 세계를 형상화시킴으로써 은연중 교회는 시각보다 청각을 더 가치 있는 감각으로 간주하곤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 교회에서는 음악은 비교적 중요한 예술분야로 권장하였지만, 미술이나 무용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발타살이 그의 “영적 감각론”에서 주장하였듯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 참여한 인간의 감각은 청각만이 아니라 시각 등 모든 오감이 동등하게 그리스도 부활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³⁸⁾ 따라서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수용한다면, 인간의 감각 가운데 결코 우열이 있을 수는 없다. 물론 각 개인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느 한 감각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특정 감각을 절대화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예술을 통한 교육을 지향하는 미래의 기독교교육은 오감의 잔치를 펼치는 교육으로써 감각의 평등화를 토대로 하여, 음악과 미술, 무용과 사진 등 현대인이 관심을 갖는 모든 예술에 대하여 상호 평등한 개방성이 요청된다.

끝으로 기독교예술언어교육은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으로서의 ‘계시’(revelation)의 매개요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써 ‘성례전성’(sacramentality)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계시’라 함은 기독교적 예술작품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폭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술신학자 빌라데사(Viladesau)가 일찍이 주장했듯이, 예술은 그 자체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 속성이 있는 것이다.³⁹⁾ 이것은 하이데거가 예술을 언급하면서 예술은 ‘존재자’가 스스로를 존재화하는 통로 혹은 은폐되어 있던 존재의 진리가 탈은폐되는 통로라고 말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⁴⁰⁾ 한편, 예술작품은 가장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례전적이다. 이것은 예술작품이 유한한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을 잇는 ‘신비’(mysterion)으로서 예술의 성례전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술의 성례전성이란 성례전이 교회예식의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최근에 성례전(sacrament)에 대한 혁명적인 의미의 확대를 수용하는 것이다.⁴¹⁾ 결국 이러한 예술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38) Balthasar, *The Glory of the Lord*, 368-371.

39) Richard Viladesau,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1999), 『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 손호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277.

40) M. Heidegger, *Der Ursprung des Kunst*, 38; 양금희, 『이야기·예술·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203 재인용.

41) 성례전을 성찬식과 같은 교회의 예식으로만 보려는 입장을 넘어서 “모든 생명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존한다는 심오한 상징”으로 보려는 시도는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Karl Rahner)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개신교 신학자 및 기독교교육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자세한 것은 Karl Rahner, *Theological Investigation*, XIV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6), 166; Robert L. Browning & R. A. Reed, *Sacraments in Religious Education and Liturgy*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개신교로 하여금 그동안 예술의 성례전성을 강조해 왔던 가톨릭교회 및 동방정교회 등과의 보다 적극적인 만남과 친교 그리고 일치의 필요성을 지향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독교교육에서 교회일치의 불가피성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영성언어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기독교교육에서 주목해야할 언어로는 ‘영성’(spirituality)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함께 종교계에서 종종 회자되는 “종교적이지는 않으나 영성적인”(not religious but spiritual)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즉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절대자)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았으나 새로운 시대의 풍조는 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도적 교회로 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종교계가 보여준 다양한 문제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제도적 종교기관에 출석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영적 활동으로 그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본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계의 경우 ‘가나안’ 교인의 증가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성언어에의 관심에 대하여 기독교교육학계에서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여기서 연구자는 영성의 논의를 단지 어느 특정한 제도적 종교의 병리적 현상에 따른 부과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앞서 암시한 것처럼, 그것을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달리 말해 모던적 패러다임에서 ‘영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으나, 이성적 시대가 그 한계를 보이면서 발생한 수많은 ‘파편화’(fragmentation)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한 형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영성’이란 점이다. 따라서 영성은 이성 중심주의가 생산해 낸 소위 성차별(sexism), 자연파괴, 인종차별(racism)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포스트모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⁴²⁾ 이런 맥락에서 향후 기독교교육은 ‘영성언어교육’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독교교육의 의미는 ‘영성형성’(spiritual formation)으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영성형성이란 영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습자가 이성중심적 패러다임이 낳은 파편화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기독교적 존재양식으로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통전성과 성례전성, 잉여성과 프락시스의 영성을 지향하는 영성적 삶으

1985), 4-11; 양금희, 『이야기·예술·기독교교육』, 209 참조.

42) 여기서 연구자는 전통적 의미의 영성과 구분되는 현대적 의미의 영성으로써 통전성의 영성, 환대의 영성, 잉여성의 영성, 프락시스의 영성, 성례전성의 영성 등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통칭 ‘생활영성’이라고 부른 바 있다. 자세한 것은 손원영, 『영성과 교육』 (서울: 한울출판사, 2004), 14ff. 참조.

로 변화되도록 돕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영성교육이 주지주의적 지식교육을 넘어서 영적 체험 중심의 온전성(wholeness) 교육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성형성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은 포스트모던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차별과 과편화를 치유하면서, ‘천-지-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영성언어교육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은 과편화의 문제를 치유하고 통전성을 향한 교육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성전통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즉 영성에의 고양을 위해서는 기도와 관상(contemplation), 그리고 영적 식별(spiritual discernment)과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의 과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에의 방법들은 개신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등 오랜 기독교 영성 전통의 도움이 긴요하다. 뿐만 아니라 ‘선수행’과 같은 불교 등의 이웃종교의 영성전통 및 현대 심리학 등의 도움도 필요하다. 말하자면 과편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성언어교육의 방법은 ‘영성에의 연대’(solidarity with spiritualities)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성에의 열린 개방성이 기독교교육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영성을 지향하는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한국인의 영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외래에서 들어온 외세의 종교가 아니라 한국인의 종교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기독교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참 종교로 이해된다는 의미는 기독교가 세계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영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영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유동식의 ‘풍류도’ 이해는 한국인의 영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유동식에 따르면, 풍류도란 통상 자연과 인생과 예술이 혼연일체된 삼매경을 일컫지만, 최치원이 말하는 풍류도란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되는 소위 신일합일사상에 그 특징이 있다. 즉 “풍류도는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면서(포함삼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참 사람 곧 본질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교화한다.(접화군생)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⁴³⁾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세계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육과 더불어 한국인의 일인 풍류도의 영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의 기독교교육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이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대하여 기독교교육의 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가? 사실 한국교회가 추구

43) 한국문화신학회(편), 『한국문화와 풍류신학: 유동식신학의 조감도』 (서울: 한들출판사, 2002), 55.

해야할 기독교교육의 미래 비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진행되어왔던 기독교교육학의 연구주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를 일관되게 탐색하였던 “세이모어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의 연구주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한국 기독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단서로써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요구되는 한국 기독교교육의 미래를 위해 ‘삼중언어교육’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성서언어교육, 기독교예술언어교육, 그리고 영성언어교육이다. 이 세 가지의 언어교육은 상호배타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한국 기독교교육의 세 가지 언어교육은 각각 독자적인 언어교육으로 보기 보다는 각 언어교육 사이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통전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페리코레스시스 측면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한국 기독교교육은 과거 기독교교육학계에서 씨름해 왔던 기독교교육의 여러 주제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삼중언어교육을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고원석 · 김도일 · 양금희 · 이규민 · 장신근 · 박상진 · 전영미,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12.
- 김기숙, “한국교회의 갱신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제7집(2003), 8-42.
- 박상진, “변화하는 교회교육 패러다임: 교회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교회』 363권(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7), 14-22.
- 손원영,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_____,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_____, 『영성과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_____, 『새 시대 새포도주: 새로운 교회교육과 학교 종교교육』. 서울: kmc, 2011.
- 손원영 · 김지혜, “종교교육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종교교육학 연구의 분석적 탐색-한국 기독교교육정보학회 및 한국종교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1권 (2005), 61-87.
- 신국원, “해체의 문화와 살림의 영성: 포스트모던의 기독교교육 비전.” 『기독교교육정보』 36(2013), 45-69.
- 양금희, 『이야기 · 예술 ·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 양희송, 『가나안성도 가나안교회』. 서울: 포이에마, 2014.
- 정희정 · 김남임, “기독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연구』 17:4(2013), 113-138.
- 한국문화신학회(편), 『한국문화와 풍류신학: 유동식신학의 조감도』.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Armstrong, Thomas. *Multiple Intelligences in the Classroom*, 3rd ed. Alexander, VA: Association of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2009.
- Baker, Dori Ginenko. *Doing Girlfriend Theology: God-Talk with Young Women*. Cleveland: Pilgrim, 2005.
- Bass, Dorothy C. Ed. *Practicing Our Faith*.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2010.
- Browning, Robert L. & R. A. Reed, *Sacraments in Religious Education and Liturgy*.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5.
- Brueggemann, Walter. “The Legitimacy of a Sectarian Hermeneutic: 2 Kings 18-19.”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Ed. Mary C. Boys. New York: The Pilgrim Press, 1989.
- _____, *The Creative Word: Canon as a Model for Biblical Education*, 2nd e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15.
- Dewey, John. *Art as Experience* (1934).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언 역. 서울: 책세상, 2003.
- Dykstra, Craig. *Growing in the Life of Faith: Education and Christian Practices*. Louisville: Geneva Press, 1999.

- Farley, Edward. *Practicing Gospel: Unconventional Thoughts on the Church's Minist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Foster, Charles R. "Religious Education at the Edge of History," *Religious Education* 99:1 (Winter 2004), 72-78.
- Foster, Charles 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Adaptive challenge of Mainline Protestant Education in Forming Faith*. Eugene, OR: Cascade Books, 2012.
- Fowler, James W.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1970.
- Gardner, Howard. *Intelligence Reframed*. (1999)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문용린 역. 서울: 김영사, 2001.
- _____. *Multiple Intelligences: New Horizons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2006.
- Greene, Maxine. *Variations on a Blue Guitar: The Lincoln Center Institute Lectures on Aesthetic Education* (2001). 『블루기타변주곡』. 문승호 역. 서울: 다빈치, 2011.
- Groome, Thomas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 _____.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New York: HarperOne, 2011.
- Gutierrez, Gustavo. *A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Politics, and Salvation*. 1973.
-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 Hodgson, Peter C. *Winds of the Wind* (1994). 『기독교구성신학』. 손원영 외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0.
- Lee, James Michael. *The Shape of Religious Instruction: A Social Science Approach*.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1971.
- _____. *The Flow of Religious Instruction: A Social Science Approach*.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73.
- _____. *The Content of Religious Instruction: A Social Science Approach*.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5.
- Moran, Gabirel. *Religious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9.
- Nelson, *Where Faith Begins*. Louisville: John Knox, 1971.
- Parker, Evelyn L. *Troubled Don't Last Always: Emancipatory Hope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leveland: Pilgrim Press, 2003.
- Rahner, Karl. *Theological Investigation*, XIV.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6.
- Schipani, Daniel S. *Religious Education Encounters Liberation*.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8.
- Seymour, Jack L. & Miller, Donald E. Eds. *Contemporary Approaches to Christian*

-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오늘의 기독교교육연구』. 맹용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_____. *Mapping to Christian Education: Approaches to Congregational Learning* (1997). 『기독교교육의 지도그리기』.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_____. O'Gorman, H. & Foster, C. R. *The Church in the Education of the Public: Refocusing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_____. *Teaching the Way of Jesus: Educating Christians for Faithful Living* (2014).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교육학』. 오성주 역.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5.
- Theißen, Gerd. *Zur Bibel Motivieren* (2003).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열린 성서학 습의 길』. 고원석·손성현 역. 서울: 동연, 2010.
- Viladesau, Richard.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1999). 『신학적 미학,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의 하나님』. 손호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von Balthasar, Hans Urs.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Vol.1, trans. by Erasmo Leiva-Merikaki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8.
- _____.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8-1998.
- _____. *Theo-Logic: Theological Logical Theory*. Trans. by Adrian Walker.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0.
- Westerhoff III, John. "What does the Zion have to do with Bohemia?" *Religious Education*, 76:1 (1981), 5-15.
- _____.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6.
- _____. Neville, G. K. *Generation to Generation: Conversations on Religious Education and Culture*.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1974.
- Winberly, Anne S. *Soul Stories: Afric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Rev. 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원고접수일: 2015년 11월 16일 심사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4일

연구자소개: 손원영

- ① 전공: 기독교교육 / 소속: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 ② 관심영역: 영성교육, 기독교예술교육
 - ③ 주요논저: 「새 시대 새 포도주: 새로운 교회교육과 학교종교교육」, 「영성과 교육」,
「기독교문화교육과 주일교회학교」 등
 - ④ E-mail: sohnwo@gmail.com
-

Abstract

Emerging Issues and Visions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Sohn, Wonyoung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not only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major themes of Korean Christian education, but it also looks for emerging issues and visions of Korean Christian education in future. First of all, the article finds that around 30 years the five major themes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world are still effective, that is, religious instruction, faith community, faith development, liberation, and interpretation. In addition to that, in Korean church, two themes, on-line education and Christian arts, are emerging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the critical reflection on the past of Christian education,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as emerging issues for the Korean Christian education in paradigm shift era. First, Korean Christian education needs to focus on creatively “teaching the Bible” related on Four Gospels rather than Letters, critical Bible study at the church, and multiples intelligences. Second, “Christian art education” needs to be considered as a significant and rising issue in future. Thus, it is important that Christian educators encourage their learners to enhance the quality of aesthetical experiences, to balance different senses or equality of senses, and to be aware of sacramentality and God’s revelation through arts. Finally, it suggests that “spirituality” is also very important emerging issue in Korea Christian education. In order to do education of spirituality, Christian educator needs to keep in mind that definition of Christian education is about spiritual formation. In addition, respect to various different spiritual traditions, and Korean’s own indigenous spirituality so called “*Pungyudo*” should be considered in Korean Christian education in future.

Key words: post-modern paradigm, Protestant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teaching the Bible, arts, spirituality